

-아/어 있다

~해 있다 — 동작의 결과 상태

동작이 끝난 뒤 남아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.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-고 있다와 짝을 이룹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ㅣ 또는 ㅜ	-아 있다	앉다 → 앉아 있어요
그 밖의 모음	-어 있다	열리다 → 열려 있어요
자동사만	목적어 없음	앉다, 서다, 남다, 열리다
타동사에는	-고 있다	밥을 먹고 있어요
높임	-아/어 계시다	앉아 계세요
과거	-아/어 있었다	서 있었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아요/어요규칙을 따릅니다: 앉아 있다, 서 있다, 열려 있다.
가장 중요한 제약은 자동사에만 붙는다는 것입니다. 즉 목적어가 없는 동사입니다. 앉다, 서다, 눕다, 남다와 피동사 열리다, 켜지다, 닫히다가 모두 해당합니다. 먹다 같은 타동사에는 붙을 수 없어 밥을 먹어 있어요는 불가능합니다.
-고 있다와의 차이는 뚜렷합니다. 앉고 있어요는 지금 앉는 동작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, 앉아 있어요는 앉은 상태라는 뜻입니다. 학습자는 -고 있다를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, 그러면 의자에 아주 천천히 앉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게 됩니다.
높이는 주어에는 있다 대신 계시다를 씁니다: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.

■ 예문

- 1 친구가 저기 앉아 있어요.
- 2 창문이 열려 있어요.
- 3 불이 아직 켜져 있어요.
- 4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.
- 5 음식이 조금 남아 있어요.
- 6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세요.

■ 비교

-고 있다
-고 있다는 동작이 진행되는 것이고, -아/어 있다는 그 동작이 만든 상태입니다. 목적어가 있는 동사에는 -고 있다만 쓸 수 있습니다.
앉고 있어요. (의자에 앉는 중) / 앉아 있어요. (앉은 상태)

피동사
이 어미를 취하는 동사 중 상당수는 그 자체가 피동사입니다. 짝으로 함께 익히면 효율적입니다.
열다 → 열리다 → 열려 있다 / 켜다 → 켜지다 → 켜져 있다

-아/어 놓다
-아/어 놓다는 누군가가 그렇게 해 두었다는 뜻으로 행위자가 드러납니다. -아/어 있다는 누가 했는지 말하지 않고 상태만 전합니다.
창문이 열려 있어요. (창문이 열린 상태) /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. (내가 창문을 열어 두었다)

■ 주의

- ✗ 지금 밥을 먹어 있어요.
-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.
먹다는 목적어를 취하므로 이 어미를 쓸 수 없습니다. 결과 상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자동사뿐입니다.
- ✗ 친구가 저기 앉고 있어요. — ‘저기 앉아 있다’는 뜻으로 (×)
- 친구가 저기 앉아 있어요.
앉고 있어요는 앉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이미 앉은 사람에게는 상태 표현을 써야 합니다.
- ✗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어요.
-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세요.
높이는 주어에는 있다를 계시다로 바꿔 문장 전체를 맞춥니다.